

한난, 우즈벡 신도시 K-난방 도입 AI기반 열공급 중단율 ‘제로’ 적용

바이오매스 사업 과제 구체화

뉴타슈켄트 최적 에너지 공급 논의 타슈켄트주 부지사, 한난 센터방문
지작 바이오매스 발전 협력 구체화
재생에너지 난방·연료관리 체계 구축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고효율·친환경 ‘K-난방’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난은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부지사와 농림부 차관을 잇따라 면담하고, 지난 9일 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린 한·우즈벡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뉴타슈켄트 신도시 K-난방 도입과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의 주요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난은 초대형 복합 신도시로 개발 중인 뉴타슈켄트시에 K-난방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즈미딘코자 사리포프 타슈켄트주 부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아리포프 총리가 요청한 ‘뉴타슈켄트 최적 에너지 공급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사리포프 부지사는 한난 통합운영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방문해 열공급 중단율 ‘제로(ZERO)’를 기록 중인 AI기반 K-난방 운영 시스템을 살



이병희 한난 사업본부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잠쉬드존 압두주후로프 농림부 차관과 면담을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난

펴봤다. 그는 “뉴타슈켄트는 의료·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첨단 복합도시”라며 “선진형 K-난방 기술을 적극 도입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병희 한난 사업본부장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잠쉬드존 압두주후로프 농림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드칩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운영 경험을 보유한 한난은 세계 3위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현지 최초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모델을 구축, 대기오

염 저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양측은 ▲재생에너지 기반 K-난방 도입 협력 ▲바이오매스 연료 조달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생산 정보 공유 등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K-난방 사업의 핵심 레퍼런스 국가”라며 “노후 지역난방 설비 현대화와 뉴타슈켄트 신도시 K-난방 적용,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을 통해 우즈벡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석유관리원, 수소 생산기지 현장 점검

오늘부터~19일까지 1주간 실시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충전소 수급 취약기간을 앞두고 수송용 수소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를 위해 12월 15일~19일까지 약 1주간 주요 수소 생산기지

와 출하센터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수요 증가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시기를 대비해 △수소 생산기지·출하센터의 수급 관리 및 운영 현황 △사업장 안전시설과 설비 상태 △수급 차질 발생 시 대응 협력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를 통해 수급 취약기간 중 수소충전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설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급 비상상황 발생 시 수소 추가 생산과 중점 충전소 우선

공급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충전 대란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소 생산 중단 등으로 충전소 공급이 일시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주요 수소 생산시설·출하센터와 수소 유통전담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준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소 수급 취약기간을 대비한 생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수소충전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하잉(Hying)과 소비자 신고센터(1688-4785)를 통해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 제공, 충전 차질 발생 시 대체 충전소 안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청년농업인 임대농지 내년 68% 늘린다

농식품부,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 공개

내년에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지원되는 임대농지가 올해 대비 60% 넘게 늘어난다. 또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헥타르(ha)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6년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68% 확대해 공급한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300% 늘릴 계획이다. 청년농이 부담하는 임차료는 일반적인 임차료 대비 80%가량 낮은 수준으로 ha(3025평)당 평균 56만 원이다.

아울러 농지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또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농가규모 등에 따라 한도 책정)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도울 계획이다.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경남 밀양 소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생들이 직접 재배한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에서 시범사업(10ha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농이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영 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규로 도입한다.

정부는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한다고도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아시아 회사채 조달 다각화 추진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와 협력 기업 현지법인 중장기 자금 지원 국내 은행 아시아 진출·수익 창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시아 시장 내 회사채 발행에 대한 공동 보증을 추진해 금융조달 경로를 다각화하고,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무보는 지난 11일 필리핀 마닐라 소재 CGIF 본사에서 CGIF와 ‘우리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CGI

F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 정부가 투자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13개 회원국에서 발행되는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국내 은행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에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경우 공동 보증 지원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의 보증을 활용할 경우 우리

기업의 신용도가 보강돼 현지 금융조달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은행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촉진해 새로운 해외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아시아 시장은 막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금융·투자 거점이자 지속적인 수출 확대 노력과 투자 성과가 창출되어야 할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은행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딸기·포도·단감 신제품 ‘아세안 시장성’ 타진

통합바이어 신선 품평회 개최
7개국 바이어 100여 명 참석
신선 과일 신제품 마켓 테스트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국내 육종 신제품 딸기·포도·단감의 아세안(ASEAN)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지난 1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세안 통합바이어 신선 품평회’를 개최했다.

14일 aT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7개국에서 신선 수입바이어와 대형 유통업체, 현지 인플루언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품평회는 국내에서 육종한 수출에 적합한 신제품을 중심으로 마켓테스트가 진행됐다.

딸기는 금실·홍희·비타베리, 포도는 홍주씨들리스·글로리스타·코코볼등프

리미엄 신제품이, 단감은 부유·감잎차 등 단감가공품이 소개됐다. 참석 바이어들은 다양한 품종에 대해 품종별 특징, 식감, 향미, 색깔 등을 비교하며 현지 시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딸기·포도·단감 품종개발 전문가들이 직접 참석해 품종 개발배경, 특성, 유통방법 등을 소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충주 사과·밤·토마토·고구마 특판전

고양점서 충주 농산물 행사

농협경제지주가 이달 17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에서 ‘2025년 충주 농산물 특판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충주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농협이 추진 중인 이른바 ‘농심전심 운동’의 일환이다.

농협은 사과 밤 방울토마토 고구마 4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시식행사도 진행해 국산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